

흥미진진한 민주당 대표 경선

김한길 연승... 김두관 영향력 먹혔나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이해찬 대세론'이 무너지면서 '이해찬-김한길' 양강 구도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8일 현재까지 모두 7번에 걸쳐 10개 지역 대의원투표를 실시했는데 김한길 후보가 울산·전남·대구·경북·경남·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이해찬 후보가 부산·충남·대전 등 3개 지역에서 각각 승리했다. 광주에서는 호남 유일 후보인 강기정 후보가 1위를 차지했고 김 후보가 2위를 기록했다.

압도적 승리가 예상됐던 이 후보는 울산·전남·대구에서 4위, 제주에서 각각 3위에 그치며 체면을 구겼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부산과 고양인 충남, 대전 등에서 많은 표를 확보하며 누적 득표수에서는 1위를 차지, 뒤따르는 김 후보와 함께 양강 구도를 만들었다.

김 후보가 '이해찬 대세론'을 꺾고 선전하는 것은 '이해찬-박지원 연합분당론'이 '담합론'으로 인식

경남·제주서도 1위... 총득표는 이해찬이 앞서

수도권·모바일 투표 남아 있어 선두 예측불허

되면서 비판 여론으로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박 연합 분당론'이 친노(친노우원)계와 호남 일부세력의 나눠먹기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남의 표심을 알 수 있는 광주·전남 경선에서도 이해찬 후보는 2위와 4위에 그치며 참패했다.

여기에 당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친노에 대한 강한 반발도 한 몫하고 있으며, 경선전 와중에 벌어진 공직성 논란도 친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아가 이번 경선에서는 친노세력의 분화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 지사가 이해찬-김한길 후보를 각각

측면 지원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 때문에 친노세력이 막강한 것으로 평가됐던 경남에서 이해찬 후보는 김한길 후보에게 뒤졌다.

김한길 후보는 또 비노 대선주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북 경선에서도 김 후보는 예전에는 손학규 상임고문과 가까웠고 최근에는 김 지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의 도움을 받아 승리를 이끌었다. 또 수도권 투표에서는 수도권의 맹주인 자치하는 경기지사 출신의 손상임고문이 김 후보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당 조직의 대다수를 친노가 장악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경선은 이제부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의원투

표 30%, 시민·당원투표 70%로 이뤄져 있어 시민과 당원의 표심이 승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전체 대의원투표수의 48.8%가 몰려 있는 수도권 투표도 남아있어서 승패를 속단하기에 이르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후보가 대표를 지낸 시민단체인 '시민주권'이나 친노 인사인 문성근 전 최고위원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명령 백만민관' 회원이 조직적으로 모바일 투표에 참여할 경우 시민투표는 이해찬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는 두 명의 후보가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28일 현재까지는 문용수 후보의 탈락이 유력한 가운데 나머지 한 명이 누가 될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우상호·조성식·이종걸 후보 중 한 명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할 확률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北에 묻힌 국군 유해 12구 첫 봉환

1953년 정전협정후 처음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가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조국의 품에 안겼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1950년 12월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 등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 12구가 전날 공군 C-130 수송기 편으로 하와이를 출발해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면서 "북한지역 국군전사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사자 유해 귀환의 상징성을 감안해 국가차원에서 유해봉환식을 거행했다.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봉환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국방부기, 육군기, 유엔기, 성조기 등으로 구성된 기수단이 늘어난 가운데 최고의 예우를 갖춰 전사자들을 맞이했다.

전사자 유해 12구는 6·25전쟁 당시 국군으로 입대해 미군에 배속됐던 카투사로, 미군이 북한과 합동으로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찾아냈다. 유해 12구 가운데 고(故) 김용수 일병과 이갑수 일병은 신원이 확인되어 유가족과 협의의 거쳐 6월 중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나머지 10구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미국은 장진호전투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를 하와이의 미 합동전쟁포로

실종자사령부(JPAC)로 옮겨 신원확인 작업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12구가 아시아 인종으로 분류되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합동으로 감식한 결과 국군 전사자로 확인됐다. 김용수, 이갑수 일병은 미 7사단 15전차대대 소속이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인 박신한 대령은 "비록 무방한 미국에 의해 발굴되었지만 미군의 과잉 북한지역에 남아 있는 나머지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지역과 비무장지대(DMZ)에는 3~4만여구의 국군 전사자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복측과 발굴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현지시간) 시리아 중부 홀라지역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포격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집단 매장지 옆에 주민들이 모여있다. 지난 25일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정부군의 공격으로 이날 하루에만 100명이상이 숨졌다. /연합뉴스

여야 상임위 배분 대립각 국회 다음달 개원 불투명

문재인 내달 본격 대권행보

민주당 정치개혁모임, 내달 12일 초청 간담회

"10대 8" VS "여야 동수로"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다음달 5일로 예정된 개원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에 국회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줄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절대 불가입장을 밝힘에 따라 개원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16개 상임위와 2개 특별위의 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18대 국회에서 11개였던 한나라당 상임위원장 몫 중 윤리위원회를 민주당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19대 국회 300

석 중 새누리당이 차지한 의석은 당적을 포기해야 하는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과반이 안 되는 149석에 불과한 만큼 여야 동수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여당 몫이었던 정무위, 국토해양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중 하나를 양보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임위는 저축은행법, 4대강 사업, 언론사 파업 등 쟁점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으로서 절대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배분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19대 개원의 또 다른 변수로 대두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정세균·정동영도 예정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문재인 상임고문이 다음달 12일 당 정치개혁모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민주당 정치개혁모임의 회장인 이석현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개혁모임이 야권 대선주자 초청 의원간담회를 열고 있다"며 "문 상임고문은 6월 12일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개혁모임은 민주당 내 대선주자들을 초청해 대선에

입하는 자세를 확인하고 비전을 청취해왔다.

앞서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손학규 전 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했다.

문 상임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의 지난 23일 이전까지는 정치개혁모임과의 간담회를 꺼렸던 것으로 알려져 '탈상' 이후 대권 행보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세균 상임고문은 오는 29일, 정동영 상임고문은 다음달 중순에 정치개혁모임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시리아 '홀라 학살' 최소 100명 사망

"사망자 절반 어린이"

시리아 전역에서 지난 25일(현지시간) 수만명이 반정부 시위에 나서 정부군이 곳곳에 탱크를 배치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하루 동안 최소 100명 이상이 숨졌다고 AFP와 dpa 등 외신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SOHR은 중부 지역인 홀스주(州)의 홀라에서 정부군의 포격으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100명 이상이 숨졌다

며 이번 일을 '학살'로 규정했다. 애초

홀라에서는 소규모 충돌에 따른 폭동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정부군이 대포까지 동원에 집중 포격에 나섰다

이 단체는 전했다. 홀스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금요일을 마친 주민들이 거리 시위를 벌이면서 충돌이 잇따랐다.

유류브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홀라 길거리에는 어린이들의 시신이 널려 있으며, 최소한 한 명의 아이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채 숨져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야권 세력은 홀라 지역 사망자만 110명 이상으로 이 가운데 절반은 어린이라며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에 이번 학살을 조사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 4월 명목상의 휴전이 시행된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 중 하나로, 다음 주초 코피 아난 유엔·아랍연맹 시리아 특사의 다마스쿠스 방문을 앞두고 벌어졌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을 통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세력들이 몇몇 도시에서 '상당한' 부분들을 장악했다면서 그러나 전역에 걸쳐 적지 않은 파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리아에서는 지난해 3월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1만2천 6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현지 인권 단체는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Kwangju Driving School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driving school facility and a cartoon character holding a sign that says 'POLICE'. Text includes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and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Advertisement for Kwangju Driving School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with a list of vehicle types: '트레일러 대형 1,2종보통 2종 소형 (오토바이)'. It includes the slogan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and lists benefits like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and '친절한 강사진'. Contact information: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